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④ 한국 TV에서 한국어로 야스쿠니를 말하다



이전 페이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③ 스승과 제자가 말하는 아베 정권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⑤ 국제사회의 야스쿠니 문제

May 02, 2013



좋아요

27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은 광화문 사거리 동아일보 사옥에 있다. 그래서 서울지국을 방문할 때마다 안면 있는 기자와 마주치는 일이 많은데, 요즘 건물 분위기가 좀 다르다. 엘리베이터를 연애인이나 세련된 여성아나운서와 종종 함께 탄다. 1층에는 외벽이 유리로 된 스튜디오도 있다. 동아일보가 출자한 '채널A'가 이 건물에 있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 끝에 조중동 3대 신문, 그리고 또 다른 2개사가 각각 케이블방송국을 창설한 것은 2년 전. 시청률로는 지상파 대형방송국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지만 채널A는 뉴스 프로그램을 주로, 특색을 살리고 있다.

3월에 내가 서울에 막 왔을 무렵, 채널A에 있는 친구에게서 “언제 꼭 한 번 출연해 주십사” 부탁을 받았었다. “한국말을 잘하게 된 다음에.” 가볍게 대답한 나였는데, 지난주 그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갑작스러운 애깁니다만, 내일 아침 보도 프로에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 보니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가 주제라는 게 아닌가.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를 비롯한 일본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배에 나선 일이 최근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를 거센 비판으로 보도했으며,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항의의 뜻으로 일본 방문 일정을 취소해 버렸다. 출연 요청이 들어온 것은 그 시점이다.

어쩐다, 머리를 싸매게 됐다. 일본에서 정부 비판을 한다면 몰라도, 한국에서 일본을 비판하기는 녹록치 않다. 하물며 내 한국어 실력은 아직 TV에 출연할 수준이 아니다. “서툰 한국말로 그런 미묘한 주제를 다루라는 건, 좀 힘든데.” 주저하는 내게 친구는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아사히신문에서 오랜 기간 이러한 문제를 논해 온 와카미야 씨에게 꼭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도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말들이 이어졌다. 결국 몸을 빼지 못한 남자는 배짱만으로 응하기로 했다.

이리하여 4월 27일 아침, ‘뉴스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진행자와 주고받으며 15분 정도 야스쿠니 이야기를 하고 왔다. 그 속에서 의식한 것은 “A급 전범을 합사하고 전쟁을 미화하는 신사”라는 한국에서의 이미지만으로는 야스쿠니신사를 이해할 수 없다, 는 것. 나는 굳이 이런 말을 꺼냈다.

“나는 야스쿠니신사의 자리매김과 총리의 참배를 비판해 왔습니다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 전쟁과 관련돼 생명을 잃은 많은 전몰자들의 넋이 모셔져 있는



필자(왼쪽)가 출연한 채널A의



More AAA



Facebook



Twitter

것은 사실이고, 그 사람들이 ‘야스쿠니에서 만나자’ 는 말을 남기고 죽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유족들은 물론이고 일본 사람의 많은 수가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 역시 야스쿠니신사에 가면 그들을 위해 머리 숙여 빕니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예전 타 방송국에서 일하던 시절에 도쿄특파원을 지낸 일이 있어, 어시스턴트 여성아나운서도 그렇고 질문들이 핵심을 찔렀다. 천황폐하는 왜 참배를 그만뒀는가, A급 전범은 어째서 분사할 수 없나, 무라야마 담화를 다시 생각한다는 듯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발언에 일본 내 반응은 어떤가. 일본은 우경화하고 있다고 보는가……. 등의 내용이었다.

●내셔널리즘의 악순환이야말로 문제

나는 일본의 우경화라기보다 동아시아에서 서로를 자극하는 내셔널리즘의 악순환이 문제인 것이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전한 한국인 만큼, 좀 더 마음을 넓게 가져 봤으면” 하는 당부와 함께 프로그램을 마쳤다. 식은땀 나는 일긴 했지만, 나를 잡아끈 친구는 “노린 게 적중했다” 며 기뻐해 주었다.

매일 다니는 한국어수업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연습을 자주 시킨다. 그게 도움이 됐음은 자명하니 선생님께는 감사할 따름이지만, 만약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더 밝은 화제로 출연하고 싶은 맘이다.

와카미야 요시부미

일본 국제 교류센터 시니어 펠로우

1948년 출생. 2013년 1월 아사히신문 주필 자리를 떠나, 3월부터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현재 동서대학교 석좌교수와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과 일본국’ (故 권오기 씨와의 대담)등이 있다.



서울에서 쓰는 편지 와카미야 요시부미 야스쿠니신사 TV



김일석 · 공군사관학교
동아시아에서 서로를 자극하는 내셔널리즘의 악순환? 그 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관련기사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⑩정치는 티격태격, 사람들 류는 ‘다른 세계’

August 09, 2013
얼마 전, 한국 신문을 보다 “응?” 했다. 일본사람 지인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봤나 했는데, 설명을 보니 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국 외교부 엘리베이터에서 나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⑨즐겁든 까, 신촌에서의 하 생활

July 26, 2013
나의 서울생활도 어느덧 4개 반. 정계는 요즘 여야격돌로 보는 서민들의 눈은 냉담하다 하숙생활 이야기를 해볼까 나는 자취가 서툰데 외식만 나날이 대화할 상대도 있었에서 하숙하는 이유가 거기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⑧ 대학 생들의 지적 교류, 한관계에 희망 보

July 05, 2013
여성스러움이 감도는 디자인 분홍 재킷, 빛깔이 고운 노선을 흠어 태극기를 연상하움을 자아내는 보라 재킷… 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정치’로 중국을 매료했다고 다.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⑦강연, 원, 공연. 세 가지

정치가들이나 외교관들이 할 역할이 물론 중요하지만 중단없는 교류와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무엇보다도 존중의 단계가 와야한다. 지금 아시아들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다!

답글달기 ·  3 · 7월 13일 오후 6:25



김일석 · 공군사관학교

동아시아에서 서로를 자극하는 내셔널리즘의 악순환? 그 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정치가들이나 외교관들이 할 역할이 물론 중요하지만 중단없는 교류와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무엇보다도 상호존중의 단계가 와야한다. 지금 아시아인들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존중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 아시아인들이 어렵지만 좋은 일 대신에 쉬운 일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답글달기 ·  2 · 7월 17일 오후 9:26

 Facebook 소셜 플러그인

‘고엔’으로 젊음 되찾다

June 20, 2013
강연, 공원, 공연. 한국어 학습자라면 한 번쯤 접한 단어일 것이다. 하지만 선지 일본어 발음은 다 똑같은데도, 그 발음만으로도 주시는 그런 ‘고엔’의 연속성이 느껴진다. ‘고엔’ 한 주였다.

 좋아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⑥ ‘배(拜啓) 김대중 선비님’ 나를 비판하는 기사에 답장

June 03, 2013
한국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1924~2015)이 있다. 조선일보 전 주필(1924~2015)인 김대중 씨다. 김 고문은 언뜻 보면 지금도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쓰는 한 편에서 내가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좋아